

특성화고 고졸청년층의 진로준비 및 진로성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만기*

¹한국고용정보원

Study of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maturity on employment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Lee Man Ki*

¹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요약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취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특히 특성화고의 각종 취업지원정책과 더불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개인이 하는 진로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 이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증가는 취업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의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 실시한 진로준비행동, 취업 전의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이에 따른 진로성숙도 등을 주요변수로 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지원만족도는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과 진로성숙도를 높이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통해 취업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본 결과, 학교지원만족도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여성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양질의 학교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되 특히 여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으면 여성은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가정에서 갖는 진로에 대한 대화 등 진로준비활동은 남성과 달리 취업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여성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Abstract With regard to gaining employment for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what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long with specialized high school's employment support,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vocational ability support, career guidance, and employment support are implemented at school. At the same time, individuals are learn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job search behavior. Those factors influence the career maturity. Therefore, a question is, "Do they finally affect employm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such as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pre-job search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A structural equation was created and a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has significant impacts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and influences on employment directly or indirectly.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not only has a direct impact on employment, but also increases the pre-job search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is the main factor to increase employment via the pre-job search behavior.

Considering the effects among the factors in gender, th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directly increases employment, particularly for women. Therefore, high-quality school support programs should be enhanced, focusing on employment support programs for women. In addition, as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increases, women are more likely to underg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This suggests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females, such as conversation about career, is a critical factor to increasing employment unlike males. Therefore, support programs for women that is aimed at parent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career maturity, employment pre-job search behavior,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Lee Man-Ki(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el: +82-10-3728-8713 email: lee03450@hanmail.net

Received July 17, 2014

Revised July 31, 2014

Accepted August 7, 2014

1. 서론

특성화고 취업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4월 19.2%였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2011년 4월 25.9%, 2013년 4월 37.8%로 상승하였다(2013.5 교육부 보도자료). 이는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증가,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확대, 고졸자가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일학습병행제, 산학협력, 선취업후진학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특성화고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한 덕분이고 사회전체적인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각종 진로지도, 취업지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산학겸임교사 등을 배치하는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많은 특성화고에서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습, 산학연계프로그램 등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진로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및 상담, 구직기술 교육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취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학교지원프로그램과 별도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등 자발적인 취업준비 노력을 한다면 과연 취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아진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취업에 성공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의 지원시스템과 개인의 진로준비 등이 과연 취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한다. 더불어 성별로 이러한 영향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이를 통해 특성화고의 진로 및 취업지원정책에 있어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2.1 학교지원만족도

특성화고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관련시설 및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나 취업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에서도 취업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취업지원관 등 관련인력이 늘어 진로나 취업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 취업동아리활동, 산학연계프로그램 등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과 진로교과목 개설, 진로강연, 직업정보제공, 진로검사, 진로상담, 학과안내 등의 진로지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기술지원,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지도, 취업알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와 같이 각급 학교에서 확대된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1-3]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먼저 윤영란[4]의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교과목을 포함한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이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미경·김수란[1]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학교진로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자가 진로목표를 정하고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진로지도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목표설정을 하고 직업탐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5,6]도 있으나, 김강호[7]의 연구에서는 진로지도활동은 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활동보다는 진로지도활동에 따른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영주·강아란·최세빈[8]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교육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성숙도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상담, 진로교과목 수강을 받는 진로지도프로그램 참여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4,9]. 그리고 정미경·김수란[1]의 연구에서는 학교진로

지도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목표설정에 따른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취업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1.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2.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3.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4.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2.2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은 Blau[10]에 의하면 예비적 직업탐색행동과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으로 구분한다.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적극적인 직업탐색행동 이전단계로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취(직)업 정보를 모으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직업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은 구체적으로 취업을 위해 회사와 접촉하며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이외에도 직업탐색강도는 직업탐색의 빈도를 말하는 것으로 탐색강도가 높으면 인터뷰, 입사제안 등이 많아지게 된다.

정리하면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일자리 또는 직업의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정보탐색이상의 노력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관련 직업이나 직무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한 직업탐색활동으로 본격적인 취업준비활동 이전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있는데 진로준비행동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 자신의 성격 등의 이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행동 등 진로전반에 걸친 준비활동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업탐색행동은 재취업과 관련이 있다[11-13]고 하였으나, Saks & Ashforth[13]는 대학졸업시의 활동적 탐색과 달리 이전에 이루어진 예비적 직

업탐색활동은 취업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정미경·김수란[1]의 연구에서는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직업을 탐색해보는 것은 취업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았으나 이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적용되었다. 이지영·장재윤·김명연[14]은 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직업탐색과 구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4학년 1학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은 4학년 2학기 구직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취업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안관영·조영환[15]의 연구에서도 폴리텍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면접건수와 취업건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5.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2.3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앞서 설명한 직업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6]에 의하면 진로전반에 걸쳐 직업이나 진로 정보수집,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의 제반 진로준비활동 등을 말한다. 직(취)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인 직업탐색행동과 달리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전반에 관한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고등학교, 대학, 공공취업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진로지도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진로준비행동과 개인이 가정이나 스스로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준비행동과 더불어 스스로 또는 가정에서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안관영[17]의 연구에서는 지방대 졸업생의 직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진로지도나 직업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로준비행동이 구체적으로 취업목표를 세우고 직업을 탐색해 보는 직업탐색행동을 높인다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로 주영주·강아란·최세빈[8], 정운경[18], 서진희·이계경[19], 김성경[20], 김강호[7] 등이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경[20]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진로에 대한 대화, 진로준비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호[7]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활동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활동보다는 가정에서의 진로대화 등 준비행동이나 개인의 사적 경험 또는 학습이 진로성숙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미경·김수란[1]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진로준비행동이 취업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6.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7.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을 것이다.
- 가설8.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2.4 진로성숙도

Super[21]는 개인의 진로발달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진로발달의 단계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진로성숙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으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의사결정능력을 가지며 진로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게 된다고 하였다. 정윤경[18]은 진로성숙도를 ‘진로의식, 탐색 및 결정 등 개인의 진로 발달단계에서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로계획, 결정 및 행동을 하는 개인의 도달수준’으로 보았다.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연희[22]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직업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진로태도성숙이 높으면 직업을 결정하고 직업탐색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양대식·최영렬[23]은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성숙도와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하위변인들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민경[24]의 연구에서는 Betz[25]의 지적대로 진로성숙이 높은 개인은 진로와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4년제 대학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민주[2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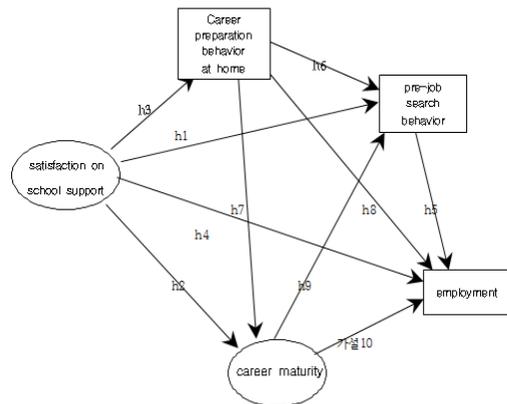
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향상은 취업진로활동에서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김봉환[16]의 연구를 토대로 효과적인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취업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9.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10.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학교지원만족도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나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를 통해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를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분석대상 및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13 고졸자취업진로조사자료」이며 분석대상은 2013년 2월 특성화고를 졸업한 비진학자 5,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학교지원만족도,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취업으로 구성된다. 주요변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data description

variables	sub-var	measure	m	sd
level of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3.78	.652
	vocational ability support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3.96	.634
	career guidance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3.83	.634
	employment support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02	.656
pre-job search behavior		job search behavior do=1 job search behavior do not=0	0.44	.49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3	1.12	.803
career maturity	objective-orient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13	.896
	cognition-orient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53	.813
	decision-orient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58	.824
	future-oriented	continuous variable: 5 point Likert	4.45	.953
employment		employment=1, unemployment=0	0.77	.417

선행변인으로 학교지원만족도를 설정하였는데 학교에서의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고졸자가 경험하는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가족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진로에 대한 대화, 진로상담 및 검사), 진로성숙도(목표성, 인지성, 결정성, 미래성), 그리고 취업여부를 주요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학교지원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은 0.768이상이며 신뢰도는 0.913이다.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김아영·유성경·김봉환[27]의 설문을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적은 5문항을 제외한 후 4요인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요인적재량은 0.713이상이며 신뢰도는 0.846이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지원만족도,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도, 취업 등의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Amos 19.0이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계수에 있어 집단 비교를 위해 측정 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제약은 전체 분석모형에서 성별로 측정결과가 동일할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 간 등가제약은 모든 경로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각의 경로에서 조절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특성화고 졸업자 5,149명으로, 연구대상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194명(42.6%), 여자는 2,955명(57.4%)으로 여자가 조금 많았다. 졸업한 학교유형은 특성화고가 4,224명(82%)으로 가장 많았고 마이스터고 495명(9.6%), 종합고 430명(8.4%)순이었다. 거주 권역은 경기/강원이 1,611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27.1%), 호남권(15%), 서울(14.1%), 충청권(12.5%)순이었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 2,925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23.2%), 예체능계열(10.8%), 자연계열(5.4%), 의약계열(2%), 인문계열(1.5%), 교육계열(0.4%) 순이었다.

[Table 2] statistical description

		numbers (%)
sex	male	2,194(42.6)
	female	2,955(57.4)
types of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	4,224(82.0)
	comprehensive high school	430(8.4)
	meister high school	495(9.6)
location	Seoul	724(14.1)
	Kyung-gi/ Kang-won	1,611(31.3)
	Chungcheng area	646(12.5)
	Honam area	772(15.0)
	Yeongnan area	1,396(27.1)
major	art and humanity	75(1.5)
	social system	1,192(23.2)
	education	21(0.4)
	engineering system	2,925(56.8)
	natural science	279(5.4)
	medicine	103(2.0)
	art and physical	554(10.8)

4.2 상관분석

모형적합도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각 관측변인 간 대부분 일정하게 상관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	B	C	D	E	F	G	H	I	J	K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1										
vocational ability support	.742**	1									
career guidance	.675**	.741**	1								
employment support	.597**	.624**	.719**	1							
pre-job search behavior	.079**	.097	.115**	.136**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155**	.256**	.151**	.161**	.159**	1					
career maturity1	.303**	.297**	.321**	.290**	.243**	.233**	1				
career maturity2	.250**	.249**	.311**	.264**	.171**	.138**	.648**	1			
career maturity3	.187**	.180**	.239**	.251**	.115**	.087**	.535**	.609**	1		
career maturity4	.216**	.197**	.270**	.258**	.158**	.130**	.595**	.500**	.546**	1	
employment	.077**	.057	.085**	.085**	.048**	.054**	.065**	.039**	.025	.065**	1

** p < .01

4.3 전체모형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서 비교모형인 완전매개모형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분석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TLI와 CFI, RMSEA 등의 적합도지수를 보고 평가해 본다. 분석결과, 두 모형 모두가 적합도가 높으나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료의 설명력이 높았다. 이에 따라 부분매개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하였다.

[Table 4] model fit

model	$\chi^2(df)$	TLI	CFI	RMSEA
mediation model (comparison model)	443.151 (38)	.946	.969	.046
partial mediation model (research model)	420.383 (37)	.947	.971	.045

연구모형에서 적합도 분석결과, χ^2 은 420.383(df=37, p=.000)로 χ^2/df 값이 양호한 편이었다. 이밖에 GFI(기초적합지수), NFI(표준적합지수), IFI(증분적합지수), CFI(비교적합지수) 등이 모두 .943 이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충족하고 있으며 RMSEA(모집단원소간평균차이)=.045로 적합한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28]. 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sult

path	β	SE	CR	significant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Rightarrow pre-job search behavior	.016	.018	.886	rejection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Rightarrow career maturity	.390	.026	21.245***	acceptanc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Rightarrow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197	.026	12.158***	accept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Rightarrow pre-job search behavior	.116	.009	8.265***	accept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Rightarrow career maturity	.124	.013	8.492***	acceptance
career maturity \Rightarrow pre-job search behavior	.202	.012	11.869***	acceptance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Rightarrow employment	.089	.015	4.799***	acceptance
career maturity \Rightarrow employment	.014	.010	.817	reje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Rightarrow employment	.029	.007	2.031*	acceptance
pre-job search behavior \Rightarrow employment	.029	.012	2.010*	acceptance

$\chi^2=420.383$, d.f=37, GFI=.943, NFI=.968, IFI=.971, CFI=.971, RMSEA=.045

*** p<.001, * p<.05

학교지원만족도는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 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학교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강화된다. 이는 학교에서 각종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시행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분석에서 보면 프로그램 참여 수 증례를 들면 취업지원경험 수의 경우 평균 4.1개 정도로 많으나 만족도의 편차는 큰 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지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지원만족도는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탐색하는 데는 학교에서의 지원시스템이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 행동, 진로성숙도 등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먼저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성숙도를 높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특성화고 졸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로성숙도는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취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선행변수인 학교지원만족도,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중에서 분석결과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었다. 다만 진로성숙도는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진로성숙도가 높은 특성화고 졸업자라도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가지고 이에 맞는 직업탐색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서 취업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목표로 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의 진로대화,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을 통해 진로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야는 분석결과,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을 토대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4.4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4.4.1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4.4.1.1 성별 학교지원만족도

학교지원만족도는 시설 및 교과지원만족도, 직업능력 지원만족도, 진로지도만족도, 취업지원만족도 등으로 나뉜다. 성별에 따른 학교지원만족도는 시설 및 교과지원만족도, 취업지원만족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학교에서의 시설, 환경, 교과과정 등의 시설 및 교과지원만족도와 구직기술, 알선, 취업상담 등의 취업지원만족도에서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by sex

(m, sd)

	satisfaction on facility and subject support	satisfaction on vocational ability support	satisfaction on career guidance	satisfaction on employment support
male	3.81(.672)	3.96(.632)	3.83(.655)	4.05(.668)
female	3.73(.621)	3.95(.640)	3.85(.606)	3.98(.635)
df	5,147	393	1,841	2,776
t	4.221	.246	-.653	3.134
sig	.000	.806	.514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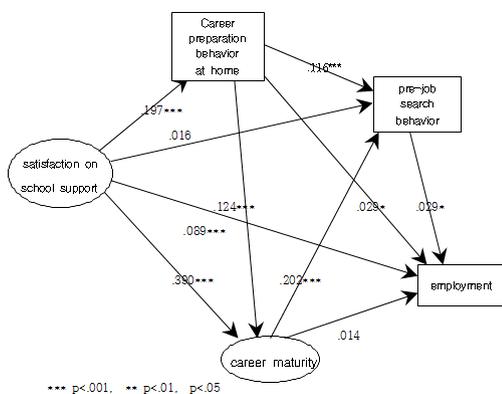
4.4.1.2 성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가정에서의 진로대화, 직업체험, 진로상담 등을 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경험한 진로준비행동 개수별 명(%)는 Table 7과 같다. 성별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개와 3개의 진로준비행동은 남성이 많았으나 1개와 2개의 진로준비행동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by sex n(%)

ite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0	1	2	3
male	629(21.3)	1,642(55.6)	428(14.5)	256(8.7)
female	330(15)	1,353(61.7)	349(15.9)	162(7.4)
sum	959(18.6)	2,995(58.2)	777(15.1)	418(8.1)
statistics	$\chi^2 = 38.653***$			

*** p < .001



[Fig. 2]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sult

4.4.1.3 성별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성별로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있는 경우는 남성이 41.6%, 여성이 47.5%로서 여성이 약간 높았다.

[Table 8] pre-job search behavior by sex

item	pre-job search behavior	
	do-not	do
male	1,725(58.4)	1,230(41.6)
female	1,152(52.5)	1,042(47.5)
sum	2,877(55.9)	2,272(44.1)
statistics	$\chi^2 = 17.590^{***}$	

*** p < .001

4.4.1.4 성별 진로성숙도

성별로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3(결정성)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결정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career maturity by sex

item	(m, sd)			
	objective-oriented	cognition-oriented	decision-oriented	future-oriented
male	4.12 (.921)	4.54 (.833)	4.66 (.832)	4.47 (.970)
female	4.14 (.862)	4.52 (.785)	4.48 (.801)	4.43 (.931)
df	5,147	5,147	5,147	5,147
t	-.991	.877	7.863	1.208
sig.	.322	.380	.000	.227

4.4.2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앞서 분석결과, 성별로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진로성숙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성별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로준비와 진로성숙도 등과 취업과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성별로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집단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동일성 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이 필요하다[29]. 먼저 측정동일성 제약은 집단의 요인적재치에 동일한 제약을 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집단간 등가제약은 각 집단의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하여 경로별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성별 집단에 측정동일성 제약(각 변인에 대해 요인의 적재치를 고정)을 가하고 집단 간 회귀계수의 반응이 동일한 지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또한 모든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집단간 등가 제약모형의 적합도도 제시되었다.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면 양 모형의 적합도를 TLI, CFI, RMSEA 등으로 보면 적합도지수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Table 10] model fit difference

model	$\chi^2(df)$	TLI	CFI	RMSEA
metric invariance constraints model	475.944(80)	.950	.970	.031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model	502.616(90)	.954	.969	.030

이에 따라 다집단분석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두 집단 사이에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모형내의 각 경로계수에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 10개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가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chi^2=26.672$, $df=10$ 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일부 경로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1에서 보면 성별 간에 학교지원만족도⇒취업, 진로성숙도⇒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등의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만족도⇒취업, 진로성숙도⇒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등의 경로에서 성별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1] group difference analysis

path	df	χ^2	TLI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1	.215	-.001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pre-job search behavior	1	.277	-.001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employment	1	6.596*	.000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career maturity	1	.012	-.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 career maturity	1	.135	-.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 employment	1	1.631	-.00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pre-job search behavior	1	.049	-.001

career maturity⇒ pre-job search behavior	1	9.531**	.000
career maturity⇒ employment	1	2.842	.000
pre-job search behavior⇒ employment	1	1.370	-.001
10 path	10	26.672**	-.004

** p<.01, * p<.05

다음으로 경로계수에 집단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집단별 모수 추정치를 제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parameter estimated value comparison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between groups

path	male	fema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328***(.205)	.304***(.190)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pre-job search behavior	.025(.027)	.006(.006)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employment	.047*(.056)	.127***(.156)
satisfaction on school support ⇒ career maturity	.559***(.394)	.564***(.38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career maturity	.108***(.122)	.118***(.127)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employment	.006(.012)	.025*(.05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t home ⇒pre-job search behavior	.071***(.120)	.067***(.102)
career maturity⇒ pre-job search behavior	.169***(.253)	.096***(.136)
career maturity⇒ employment	.023(.039)	-.011(-.020)
pre-job search behavior⇒ employment	.032+(.036)	.004(.005)

$\chi^2=502.616$, $df=90$, $TLI=.954$, $CFI=.969$, $RMSEA=.030$

*** p<.001, ** p<.01, * p<.05, + p<.1

이제부터는 Table 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토대로 하여 남녀 집단별 모수 추정치를 Table 12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지원만족도는 남녀 공히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취업, 진로성숙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학교지원만족도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높이므로 학교에서는 양질의 학교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남녀 공히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로성숙도는 남녀 공히 직접적으로 취업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다만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한 남성은 0.1수준에서 취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구체적으로 취업목표를 정하고 직업탐색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여성에 있어 취업을 높이고 있어 여성의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남성보다 취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으면 여성은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여성은 양질의 학교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강화하고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추가한다면 취업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가정에서의 진로에 대한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이 매우 중요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진로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로부터 지원받는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참여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예비적 직업탐색행동 및 취업 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교지원만족도는 진로성숙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며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도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지원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 및 교과지원, 직업능력지원,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과 진로성숙도를 높이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이 특성화고 졸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지원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등으로 높아진 진로성숙도는 직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은 없으나 취업할 직업을 찾는 등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통해 더욱 취업의 확률을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졸업자라도 취업 전 직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직업

을 찾는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이 있을 때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시사점은 먼저, 학교에서는 양질의 진로지도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 하되 프로그램 내용 중에 개인이 직접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좀 더 현장 중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학생이 무언가 스스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는 진로지도를 할 때 가정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학부모대상 진로지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대화,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을 같이 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많은 진로지도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진로성숙도가 높을 수는 있으나 정작 이들이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탐색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찍이 취업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탐색해 보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취업의 확률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결과, 취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탐색해 본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취업률이 4%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본 결과, 학교지원만족도는 남녀 공히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취업, 진로성숙도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학교지원만족도는 취업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여성의 경우 더 높아 남녀를 대상으로 양질의 학교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되 특히 여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로성숙도의 경우 남녀 공히 직접적으로 취업을 가져오지 못하나 남성의 경우 예비적 직업탐색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남성은 구체적으로 직업목표를 정하고 직업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분석결과 학교지원만족도가 높으면 여성은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게 되므로 여성에 필요한 학교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이 가정

에서의 진로에 대한 대화 등 진로준비활동을 하는 것은 남성과 달리 취업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의 진로지도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Kyung, Chung and Su-ran, Kim(2013),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goal sett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relation of university's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employment", The Korean educational review, 19(2):123-144.
- [2] Kyong-Ran, Roe, Young-ho, Park and Sun-ju, Heo (2011),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university's career development programs on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employment status,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9(1): 63-92.
- [3] Won-June, Kang, Jong-in, Kim and Jung-won, kim (2008), "A Study on the analyses and effectiveness of the job search supporting programs by univers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5(1):17-33.
- [4] Young-ran, Yoon(2008), A study on effective career-guidance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areer subject class and career group counseling, Ph.D degree.
- [5] Mi-hee, Han(2011), "A study to develop an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95-113.
- [6] Seung-Jong, Lee(2003), "A study of the career maturity on student's characteristics in general high school's vocational cours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Mater degree
- [7] Kang-ho, Kim(2009), "The effect of career guidance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of stud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8(4): 183-200.
- [8] Young-ju, Joo, Aran, Kang, and Se-bin, Choi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teacher's support, satisfaction on career educ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4): 25-47.
- [9] Hee-su, Kim(2007),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as curriculu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1(2):

- 35-46.
- [10] Blau, G.. (1994), "Testing a two-dimensional measure of job search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 pp.288-312.
DOI: <http://dx.doi.org/10.1006/obhd.1994.1061>
- [11] Kanfer, R. & Hulin, C.(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off", *Personnel Psychology*, 38(4), 835-847.
DOI: <http://dx.doi.org/10.1111/j.1744-6570.1985.tb00569.x>
- [12] Wanberg, C. R., Watt, J. D., & Rumsey, D. J. (1996), "Individual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 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1), 76-87.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81.1.76>
- [13] Saks, A. M., & Ashforth, B. E.(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job search behavior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335-349.
DOI: <http://dx.doi.org/10.1006/jvbe.1998.1635>
- [14] Ji-young, Lee, Jae-yoon, Jang and Myung-un, Kim(200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job search behavior and employment among college senior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1): 1-23.
- [15] Kwan-young, Ahn and Young-hwan, Cho(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behavior and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5(1): 111-130.
- [16] Bong-whan, Kim, and Kay-hyon, Kim(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17] Gwan-young, Ahn(2004), "Job search behaviors of provincial university graduate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23(3):19-44.
- [18] Yun-kyong, Jeong(2005),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among Korean Juveniles: focused on the personal, home, and school-related contexts", the 1st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Conference*, 259-305.
- [19] Jin-hee, Seo and Jae-kyoung, Lee(2009), "The influence of parent career behavior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10(4):2153-2167.
- [20] Sung-kyoung, Kim(2009),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and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s by students' sex and school-typ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145-170.
- [21] Super, D. E. & Overstreet, P. L.(1960), "The Vocational Maturity of Ninth-Grade Boys", N.Y. : Teachers College Press.
- [22] Yeon-hee, So(2011),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etermination, need,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ory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30(2): 117-134.
- [23] Dae-suek, Yang and Young-ryul, Choi(2009), "A study on career sense maturity and career search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Master degree*.
- [24] Min-kyoung, Song(2009), "A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youth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6(10):51-81.
- [25] Betz. E. L.(1984), "A study on career patterns of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49-264.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4\)90011-3](http://dx.doi.org/10.1016/0001-8791(84)90011-3)
- [26] Min-joo, Chung(2014),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2(1): 81-104.
- [27] Ahyoung, Kim, Sung-kyung, Kim, and Bong Whan, Kim(2006). *Development of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for Adolescents*.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28] Gye-su, Kim(2009), "AMOS 16.0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Hannarae Inc.
- [29] Joo-hwan, Kim, Min-gyu, Kim, and Seo-hee, Hong(2009), "Writing article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mmunication books*.

이 만 기(Lee Man-Ki)

[정회원]



- 2007년 2월 :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리더십, 조직